

# 春秋時代 築城 작업에 나타난 民의 개체성 연구

천 영 미\*

## <目次>

- |                  |                        |
|------------------|------------------------|
| I. 서론            | III. 春秋時代 民의 개체성 표출 양상 |
| II. 西周時代 개체성의 태동 | IV. 결론                 |

## <국문 초록>

고대 중국에서 民은 有德者의 통치로 보호받아야 될 수동적인 존재로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좌전』이나 『논어』에는 民의 또 다른 면모가 보인다. 民은 통치자의 교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군주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통치자의 다스림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 '신뢰'를 제공하는 존재로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수동적 존재로서만 부각되어 왔던 民이 개체적 존재로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民의 개체성 양상은 욕구 충족적인 특징을 지녔다. 民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군주를 찾아 '떠남'으로써 개체성을 표출하였다. 民의 개체성은 春秋時代까지 이어져서 사회전반의 현상에서 불합리한 정책에 직면하였을 때, 民은 일탈하는 행동을 통해 개체성을 표출하게 되었다.

춘추시대는 각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축성작업이 자주 진행되었고, 民으로부터의 부역을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지배층의 과도한 축성작업은 民의 일탈현상을 초래하였다. 民은 과도한 축성작업을 견디지 못하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ym0623@hanmail.net

고 도주하기도 하였고, 과도한 부역으로 지친 民은 축성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民은 고된 부역에 자신들을 징발하는 위정자를 풍자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고, 축성작업 중에 民을 부당하게 대우한 감독관을 죽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면 축성작업에 동원된 民은 위정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개체성을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西周時代에 태동한 욕구충족적인 民의 개체성이 春秋時代로 이어지면서 부당한 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民의 개체성 표출은 戰國時代에 이르러 여러 사상가들이 ‘民’을 국가의 근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고,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개체성, 축성작업, 일탈현상, 民, 적극적 대응

## I. 서론

고대 중국에서 民은 有德者의 통치로 보호받아야 될 수동적인 존재로서 여겨져 왔다. 이는 고대 문헌에서 民을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詩經』 「大雅」에서는 “하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낳아 놓으셨으나 그 명을 받은 이들이 신실하지 않으니 어찌 믿으리. 덕의 단초를 갖지 않은 이 없건만 유종의 미를 맺는 이 드물구나.”<sup>1)</sup>라고 하여 백성을 낸 주체를 天으로 설정하고, 백성을 다스릴 책임적 주체를 통치자로 설정하여 民이 보호와 통치의 대상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論語』에는 ‘民’이 50여 번 보이는데, 모두 통치계층의 교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사를 물었을 때, 공자는 “위정자가 선해지면 백성도 선해진다.”고 하였고<sup>2)</sup>,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1) 『詩經』, 「大雅」 “天生烝民 其命匪謫 靡不有初 鮮克有終”

2) 『論語』, 「顏淵」 19, “季康子問政於孔子曰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孔子對曰 子爲政 焉用殺 子欲善 而民善矣”

백성은 부리기 쉬워진다.”<sup>3)</sup>라고 하였으며, “정령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백성을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면하기만 할 뿐 부끄러움이 없어지지만, 덕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예로써 그들을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한 장차 선에 이르게 된다.”<sup>4)</sup>라고 하여 民을 ‘교화’와 ‘통치’의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좌전』이나 『논어』에는 民의 또 다른 면모가 보인다. 『좌전』 「소공 13년」의 기록에는 “초영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요역을 동원함에 만족할 줄 모르자, 民이 이를 두려워하여 반란에 참여함이 마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하였다.”<sup>5)</sup>고 하여 초영왕의 학정에 불만을 품은 民이 자발적으로 반란에 참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論語』 「顏淵」 7에서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는 백성의 식량을 풍부하게 해주고, 군비를 충분하게 마련하며, 民이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식량과 군비의 부분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함을 언급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民은 통치자의 교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통치자의 다스림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 ‘신뢰’를 제공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기존의 많은 연구는 民을 지배층의 생산을 담당하며 일체의 정사에 개입할 권리가 없는 피지배층으로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sup>7)</sup> 그러므로 본

3) 『論語』 「憲問」 41, “上好禮 則民易使也”

4) 『論語』 「爲政」 3,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5) 『左傳』, 「昭公 13년」, “民患王之無厭也 故從亂如歸”

6) 『論語』, 「顏淵」 7,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7) 조기민은 그의 저서에서 ‘民’과 ‘逸民’을 정치적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民’은 言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讒여겨볼 만한 行도 없는 존재이고, ‘逸民’은 숨어살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그 언론이 조리에 맞고 행실은 사려의 대상에 부합한 사람들이며,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고에서는 수동적 존재로 부각되어 왔던 民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民의 적극적인 대응양상이 태동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 일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II장에서는 은주 교체기 각 계층에 태동했던 개체성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축성작업에 나타난 春秋時代 民의 개체성 표출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西周時代 개체성의 태동

춘추시대 축성작업에 나타난 民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체’ 개념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연구자들은 춘추전국시대 또는 중국철학을 대상으로 ‘개체’와 ‘개인주의’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문점을 해결해야 한다. 즉 ‘개체’나 ‘개인주의’의 개념은 서양 철학의 고유한 문맥에서 배태된 용어인데, 이것을 중국 철학이나 사유방식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중국철학에서 사람이 ‘개체’로 환원 불가능한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혈연적인 관계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면, 서양 철학의 ‘개체’ 개념을 중국철학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에서 사람은 공동체로 환원 불가능한 ‘개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혈연적인 관계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서양 철학 개념의 의미의 외연을 확장시키게 되면 서양철학의 용어를 중국철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한 예로 드 베리(de Bary)는 유교에서는 도덕적 품성이나 지적 성취에서 ‘개체성’을

존재라고 밝혔다. (조기빈 지음, 조남호·신정근 옮김, 『반논어』, 예문서원, 1999, pp.68-69.)

8)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의 기원」, 『철학논구』 제27집, 1997, pp.23-25.

인정하므로 ‘자아’와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중국철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논어』에서 공자가 제자들의 개체성을 인정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드 베리의 주장을 수용하여 ‘개체성’의 개념을 先秦時代에 적용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천자의 책임적 개체성

‘개체성’의 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은주 교체기의 천명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天命常’이 ‘天命不常’으로 변화하면서 ‘개체적 자아의식’이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서주 초기의 저작인 『시경』과 『서경』을 보면, ‘하늘의 명령은 변화한다.’<sup>10)</sup>는 ‘天命靡常’·‘天命不又’·‘天命不易’<sup>11)</sup> 등의 용어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주 왕조 이전에는 ‘천명은 영원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天命常’의 의미는 특정 왕조의 정통성은 영원히 보장되고, 천자 자신은 행위 결과에 대해 영원한 면책성을 지니는 것이다. 천명의 영원성에 의하면 천명의 획득과 상실은 전적으로 하늘이 결정할 영역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왕조의 개창자가 受

9) 「Individualism and Humanitarianism in Late Ming Thought」, Wm. T. de Bary ed., *Self and Society in Ming Society* (New York & London, Columbia UP, 1970): pp.145-150.

10) 천명의 비영원성에 대한 개념은 『詩經』의 「大雅·文王」, 「小雅·小宛」, 『書經』의 「군석」·「대고」에 나타나 있다.

11) 天命靡常은 하늘이 특정 왕조의 개창자에게 처음의 한 번 명령을 주었지만 그 명령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회수되고 다른 특정 왕조의 개창자에게 건네질 수 있다는 것이다. 天命不又是 특정 왕조가 천명을 일단 한번 상실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반복 수명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天命不易는 영원한 지속과 반복 수명의 부정을 전제하고 언제 수명을 상실할지 몰라 조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며 이를 통해 수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한다. (신정근, 「고대 중국 仁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9, p.102.)

命하기만 하면 두 번째 이후의 왕들은 그 개창자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위를 자동적으로 계승하도록 결정되며, 개창자의 죽음에 직면하여 후대의 왕들은 개창자의 연속체로서 그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즉 이들은 개창자의 ‘연속체’일 뿐,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개체’로 구분될 수 없다.<sup>12)</sup>

그러나 은 왕조 말기에 이르러 ‘天命常’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주 왕조의 개창자들은 천명과 특정인의 폐쇄적인 결합을 부정하고 ‘天命不常’을 내세워 受命者들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天命不常’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최초의 수명자에서 다음 수명자로의 繼位가 자동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 이들은 천자의 무한한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 왕조의 왕들은 자신의 代에서 왕조의 운명이 종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 이와 같이 ‘天命常’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면서 천자는 선대의 왕들을 잇는 집단의 연속체적 존재가 아니라, 집단에서 분리된 ‘개체’로서 책임적인 행위를 통하여 왕조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행위방안<sup>13)</sup>을 모색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선대의 연속체로서 선왕의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로 산출되는 결과나 영향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sup>14)</sup> 이제 繼位者들은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행위를 낳기만 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한정 면책되지 않고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sup>15)</sup>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왕조의 종

12)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의 기원」, 『철학논구』 제27집, 1997, pp.26-28.

13) 周 개창자들의 ‘행위 방안 모색’은 중국 철학의 초기 단계에서 ‘삶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실천적 방법론의 특성을 띠게 된 이유가 되었다.

14) 신정근은 그의 논문에서 이를 ‘천명의 상대화’와 ‘인간 역할의 발견’으로 규정하였다.(신정근, 「고대 중국 仁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103.)

15) 이와 반대로 평가의 대상을 행위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행위자의 ‘성품’으로 보고자 시도하였던 철학자로 흠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도덕 철학자들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그 평가의 대상을 ‘행위’로 본 것에 반해 흠은 ‘성품’으로 본 점에서 그의 이론은 특이하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적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이 은주 교체기에 이르러 天子는 집단적 연속체로서의 존재에서 책임성을 지닌 개체적 존재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백이숙제의 독자적 개체성

서주시대 백이숙제의 개체성 양상은 ‘귀속’과 ‘떠남’의 형태로 나타난다. 백이숙제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통치자를 따르기도 하고,<sup>17)</sup>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통치자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

공자가 말하였다. “백이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주렸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지만, 제경공은 말 사천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덕을 칭송함이 없었다.”<sup>18)</sup>

백이숙제에 대한 공자의 평가대로, 이들은 西伯인 文王의 덕을 듣고 그에게 ‘귀속’하기도 하고, 武王이 商을 정벌하였을 때에는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에 살다가 끝내 굶어 죽었다. 백이숙제는 다수의 정치적 견해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결

---

가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행위’보다는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행위는 비교적 수명이 짧은 사건으로서 순간적이고 소멸하는 것인 반면에, 사람의 기질은 지속적이며 항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흠은 “어떤 항상적인 원리에서 비롯되지 않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양선이,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관하여-흠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9집, 2001, pp.231-250.)

16)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의 기원」, 『철학논구』 제27집, 1997, pp.29-32.

17) 『史記』, 「周本紀」 “伯夷叔齊在孤竹 聞西伯善養老 盍往歸之 太顛闕天散宜生 鬻子 辛甲大夫之徒 皆往歸之……西伯陰行善 諸侯皆來決平”

18) 『論語』, 「季氏」 12, “齊景公 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 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단을 내리며 개체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 즉 이들에게 보이는 개체성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

### 3. 民의 욕구충족적 개체성

한편 民의 개체성 양상은 욕구 충족적인 특징을 지닌다. 民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공업, 기여에 대해 자기의지와 결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의 여부에 따라 의지와 결단을 표출하였다. 즉 民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군주를 찾아 ‘떠남’으로써 개체성을 표출한다. 周나라의 건국은 결국 民의 ‘귀속’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周族 선왕들의 치적상황과 民의 ‘귀속’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周族의 계보는 后稷에서 시작되어 不窟 → 公劉 → 西園 → 公叔祖類 → 古公亶父 → 公季 → 昌[文王]으로 이어진다. 后稷은 堯임금이 農師로 임명하여 농경법을 보급케 하였던 신하로, 농경을 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였다. 后稷은 선진적인 농법을 통해 그 혜택을 온 천하가 누릴 수 있도록 한 공을 인정받아 周族이 발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公劉 시대에 周族은 邵를 버리고 豳으로 이주하여 周族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公劉는 豳으로 이주하기 위해 치밀하게 그 여정을 준비하였으며, 천도한 후에는 백성들을 위무하고 地勢를 살펴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주 후 周族은 궁실을 짓고 정착하였는데, 백성들의 생활이 흡족하고 넉넉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그 세력이 융성하였다.

公劉 이후 公叔祖類까지 8世간 약 500여 년간의 周族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sup>19)</sup> 古公亶父의 시대에 이르러 주족의 행적은 다시 문헌 속에 나타나는데, 당시 周族은 豳에서 岐山 아래 周原으로 이주하였다. 고공단보는 周族을 이끌고

19) 孫作雲, 『詩經與周代社會研究』, 北京: 中華書局, 1966, p.29.

岐山으로 이주하였다. 고공단보가 周族을 이끌고 岐山 아래 周原으로 이주하자 邠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를 따라 이주하였고, 고공단보의 仁厚함을 들은 주변의 백성들 역시 기산으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고공단보는 급증한 귀속민의 정착을 위하여 더 많은 가옥을 신축하고 농경지를 조성하였고, 周族의 건국 기반을 마련하였다.

周族의 발전은 昌[文王]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었다. 문왕은 후직과 공유, 고공단보의 위업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賢者를 우대하였으며 책임 있는 정사를 펼쳤기 때문에 천하의 人心이 그에게 귀의하였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周族 선왕들의 치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民의 ‘귀속’ 현상이다. 이들은 책임 있는 통치능력을 발휘함으로써 民의 ‘귀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왕조 개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民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통치자를 찾아 떠나는 양상으로 개체성을 표출하였다. 서주시대 民의 개체성은 春秋時代까지 이어져서 사회전반의 현상에서 불합리한 정책에 직면하였을 때, 民은 일탈하는 행동을 통해 개체성을 표출하게 되었다.

### Ⅲ. 春秋時代 民의 개체성 표출 양상

춘추시대는 각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축성작업이 자주 진행되었고, 民으로부터의 부역을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지배층의 과도한 축성작업은 民의 일탈현상을 초래하였다. 축성작업과 民의 일탈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부당한 부역요구에 대한 民의 대응양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民의 개체성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축성작업의 현황과 축성의 이

20) 『史記』, 「周本紀」 “伯夷叔齊在孤竹 聞西伯善養老 盍往歸之 太顛闕天散宜生 鬻子 辛甲大夫之徒 皆往歸之……西伯陰行善 諸侯皆來決平”

유, 축성 시기, 축성작업 과정을 통하여 民의 개체성 표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축성작업 현황

춘추시대 제후들은 땅을 넓힐 때마다 여러 성읍을 세울 정도로 빈번한 축성작업을 진행하였다.

노희공 18년(기원전642) : 양백은 땅을 넓혀 여러 성읍을 세우고도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못하였다. 그는 그 땅을 신리로 명명하였으나 얼마 후 秦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sup>21)</sup>

양백은 영토를 확보할 때마다 여러 성읍을 세웠으나 백성들을 모두 이주시키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축성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성작업은 위정자들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진행되기도 하였다.

노양공 7년(기원전566) : 노나라 대부 남유가 계씨의 영지인 비읍의 장관이 되었다. 이때 숙중소백이 隨正-부역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어 계씨와 잘 지내기 위해 남유에게 아첨하였다. “비읍에 성을 쌓겠다고 청하시오. 내가 일할 사람을 많이 배당해 주도록 하겠소.” 이에 계씨가 비읍에 성을 쌓게 되었다.<sup>22)</sup>

노나라 대부 남유가 비읍의 장관이 되었는데, 부역을 담당하는 숙중소백은 계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유에게 축성작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계씨는 비읍에 성을 쌓게 되었고, 숙중소백은 마음대로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또한 제후국들은 주 왕실을 위하여 축성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1) 『左傳』, 「僖公 18년」 “梁伯益其國而不能實也 命曰新里 秦取之”

22) 『左傳』, 「襄公 7년」 “南遺爲費宰 叔仲昭伯爲隨正 欲善季氏而求媚於南遺 謂遺 請城費 吾多與而役 故季氏城費”

노양공 24년(기원전549) : 마침 제나라가 주왕실의 邾에 성을 쌓았다. 노나라 대부 목숙이 주왕실을 빙문하고 축성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주영왕은 목숙이 예의에 맞게 행동한 것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大路를 하사하였다.<sup>23)</sup>

제나라가 주왕실의 곁 땅에 성을 쌓자, 노나라 대부 목숙이 주 왕실을 빙문하고 축성완공을 축하하였다. 제후국들은 주 왕실을 위하여 축성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예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축성작업의 이유

『좌전』에 나타난 기록 중에는 춘추시대에 축성작업이 빈번했던 이유를 드러내 주는 것이 많이 있다. 이 장에서는 춘추시대 축성작업의 이유를 공격용 축성, 수비용 축성, 궁궐 축성, 客館 축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1) 공격용 축성

춘추시대는 제후국 사이에 정벌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이다. 제후국들은 성을 쌓음으로써 다른 제후국을 정벌하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다.

노양공 2년(기원전571) : 노나라의 중손멸과 진나라의 순앵, 송나라의 화원, 위나라의 손림보, 조인, 주인 등이 戚 땅에서 만났다. 이는 정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었다. 노나라의 중손멸이 말하였다. “호뢰에 성을 쌓아 정나라를 압박하기 바랍니다.”...겨울, 다시 戚에서 만났다...이에 호뢰에 성을 쌓게 되자 정나라가 이내 화친을 청하였다.<sup>24)</sup>

정나라를 치기 위하여 노나라의 중손멸과 진나라의 순앵, 송나라의

23) 『左傳』, 「襄公 24년」 “齊人城邾 穆叔如周聘 且賀城 王嘉其有禮也 賜之大路”

24) 『左傳』, 「襄公 2년」 “會于戚 謀鄭故也 孟獻子曰 請城虎牢以偪鄭...冬 復會于戚...遂城虎牢 鄭人乃成”

화원, 위나라의 손립보 등이 戚 땅에서 만났는데, 노나라 증손멸은 호뢰에 성을 쌓아 정나라를 압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호뢰에 성을 쌓자 정나라가 화친을 청하였다. 제후국들은 세력을 연합하여 성을 쌓음으로써 다른 제후국을 위협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다음 기록에도 보인다.

노예공 원년(기원전494) : 원년 봄, 초소왕이 채나라를 포위하였다. 이는 柏舉之役-노정공 4년 채나라가 오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친 전투-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때 초나라가 채나라의 도성에서 1리 떨어진 곳에 보루를 쌓았다. 보루의 넓이는 1장, 높이는 2장이었다. 인부들이 9일 동안 머물러 주야로 공사하여 영윤 자서가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보루를 완공하였다.<sup>25)</sup>

노나라 정공 4년에 채나라는 오나라와 연합하여 초나라를 친 일이 있었다. 초소왕은 이 일을 보복하기 위하여 채나라를 포위하였다. 초나라는 영윤 자서의 명령에 따라 채나라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넓이 1장, 높이 2장이 되는 보루를 쌓음으로써 공격준비를 완비하였다. 또한 제후국 內의 대부들은 제후를 위협하기 위하여 세력을 규합하고 성을 쌓았다.

노소공 13년(기원전529) : 초영왕은 영윤으로 있을 때 대사마 蔦掩을 죽이고 그 가산을 빼앗은 적이 있었다. 즉위한 이후에는 위거의 땅을 빼앗았다. 허나라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허나라 대부 許圍를 인질로 삼았다. 초나라 대부 蔡洧는 초영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초영왕이 채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의 부친이 전사하였다. 초영왕은 간계로 갈 때 채유를 시켜 위나라 도성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한 뒤 떠났다. 신 땅에서 제후들이 회동할 때 월나라 대부 상수과가 모욕을 당했는데 초영왕은 투위구의 봉지인 중주 땅을 빼앗았다. 이 때 초영왕은 또 만성연의 봉지를 빼앗고 그를 郊尹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위씨 일족과 위거, 허위, 채유, 만성연 등은 모두 초영왕으로부터 예우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관직을 잃은 여러 족속들을 끌어들이고 월나라 대부 상수과를 유인하여 마침내

25) 『左傳』, 「哀公 元年」 “元年春 楚子圍蔡 報柏舉也 里而栽 廣丈高倍 夫屯晝夜九日 如子西之素”

난을 일으켰다. 이들은 固城을 포위하고 息舟를 점령한 뒤 그곳에 성을 쌓고 거점으로 삼았다.<sup>26)</sup>

초영왕은 영운으로 있을 때 대사마 위엄을 죽이고 그 가산을 빼앗았고, 즉위한 후에는 위거의 땅을 빼앗았다. 또한 허나라 대부 허위를 인질로 삼았으며, 초나라 대부 채유의 아버지는 초영왕이 채나라를 멸망시킬 때 전사하였다. 또한 초영왕은 만성연의 봉지를 빼앗았다. 이와 같이 초영왕이 대부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고 그들을 예우하지 않자, 대부들은 무리들을 끌어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고, 성을 쌓고 거점으로 삼았다.

## 2) 수비용 축성

제후들은 적인의 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작업을 진행하였다.

노희공 원년(기원전659) : 제후들이 형나라를 구원하였다. 형나라 사람들의 군진이 무너지자 제후들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제후들의 군사가 적인들을 몰아내고 형나라 사람들이 버리고 간 기물을 고루 모아서 옮겨놓았다. 제후들의 군사는 기물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다. 여름, 형나라 사람들이 이로 옮기자 제후들이 그곳에 성을 쌓아주었다. 이는 형나라의 환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릇 후백은 환난을 구제하고, 재해를 분담하고, 허물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다.<sup>27)</sup>

노희공 12년(기원전 648) : 12년 봄, 제후들이 위나라에 가서 초구의 외성을 쌓았다. 이는 적인의 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sup>28)</sup>

26) 『左傳』, 「昭公 13년」.

27) 『左傳』, 「僖公 元年」 “諸侯救邢 邢人潰 出奔師 師遂逐狄人 具邢器用而遷之 師無私焉 夏 邢遷于夷儀 諸侯城之 救患也 凡侯伯 救患 分災討罪”

28) 『左傳』, 「僖公 12년」 “十二年春 諸侯城衛楚丘之郛 懼狄難也”

형나라 사람들은 적인들과의 싸움에서 군진이 무너지자 제후들의 군사가 있는 곳으로 달아났다. 제후들은 적인들을 몰아내고 형나라를 구원하였으며, 형나라 사람들이 이의로 읍기자 제후들은 그곳에 성을 쌓아 형나라의 환난을 구제하고 적인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희공 12년의 기사에서 제후들은 적인의 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나라에 가서 초구의 외성을 쌓았다. 이와 같이 춘추시대에는 적인의 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성공 9년(기원전582) : 진경공이 신공 무신을 오나라로 보냈다. 무신이 거나라로부터 오나라로 가는 길을 빌린 뒤 거구공과 함께 성의 해자 옆에 서서 말하였다. “도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구공이 말하였다. “폐읍은 이 민족 틈에 끼여 궁벽한 곳에 있으니 누가 넘보고자 하겠는가?” “교활한 마음으로 영토를 넓혀 국익을 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인들 없겠는가?……용부도 층층이 문을 굳게 단속하는데 하물며 국가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겨울 11월, 초나라의 자중이 진나라를 출발해 거나라를 치고 거구를 포위하였다. 거구의 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궤산하여 거나라 도성으로 달아났다.……초나라 군사가 거나라 도성을 포위하였다. 거나라 도성 또한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11월 17일 거나라 도성이 함몰되었다. 거나라의 패배는 방비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sup>29)</sup>

쑤나라 무신은 거나라를 거쳐 오나라에 가게 되었다. 무신이 거구공에게 도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충고하였으나, 거구공은 거나라의 궁벽한 지리적 위치를 믿고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무신은 교활한 마음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수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거나라는 무신의 충고를 소홀히 여겨 성을 보수하여 방비하지 않았다. 급기야 초나라는 거나라를 치고, 거구를 포위하였

29) 『左傳』, 「成公 9년」 “晉侯使申公巫臣呂吳 假道于莒 與渠丘公立於池上 曰 城已惡 莒子曰 辟陋在夷 其孰以我爲虞 對曰 夫狡焉思啓封疆以利社稷者 何國蔑有……冬十一月 楚子重自陳伐莒 圍渠丘 渠丘城惡 衆潰奔莒 戊申 楚入渠丘……楚師圍莒 莒城亦惡 庚申 莒潰 楚遂入鄆 莒無備故也”

는데 거구의 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도망하여 거나라 도성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거나라 도성 역시 크게 훼손되어 있어 곧 함몰되었다. 즉 거나라의 패배는 성의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적의 공격에 방비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이 춘추시대의 축성작업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성작업은 패권국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노성공 원년(기원전590) : 겨울, 노나라 대부 장선숙이 병력 동원과 성곽수축을 명하는 영을 내려 방어준비를 마친 뒤 이같이 말하였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우호관계를 맺고 우리는 새로 진나라와 결맹하였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틈을 타 제나라 군사가 우리를 칠 것이다. 비록 진나라가 제나라를 칠지라도 초나라는 반드시 제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제나라와 초나라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 우리를 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화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화난은 곧 해소될 것이다.”<sup>30)</sup>

진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제나라는 초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자, 노나라는 진나라와 결맹함으로써 자국의 안정을 꾀하였다. 노나라 장선숙은 진나라와 초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틈을 타서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올 것을 방비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고 성곽을 수축하였다.

### 3) 궁궐 축성

춘추시대에 제후들은 궁궐을 축성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

노소공 7년(기원전535) : 초영왕은 보위에 오른 후 章臺之宮·章華宮-을 짓고

30) 『左傳』, 「成公 元年」 “冬 臧宣叔令脩賦繕完 具守備曰 齊楚結好 我新與晉盟 晉楚爭盟 齊師必至 雖晉人伐齊 楚必救之 是齊楚同我也 知難而有備 乃可以呈”

망명해 온 사람들을 그곳에 안치하였다.……초영왕이 장화궁을 완공한 뒤 제후들과 함께 낙성의 제례를 올리고자 하였다.<sup>31)</sup>

춘추시대에 제후들은 궁궐을 짓고, 서로 회동하여 낙성식을 거행하며 하례하고, 우호를 다지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 이 기록은 초영왕이 즉위한 후 장화궁을 짓고 완공한 뒤 제후들과 함께 낙성식을 올리고자 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제후들의 과도한 궁궐축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주장도 있었다.

노소공 19년(기원전523) : 초나라 사람이 주래에 성을 쌓았다. 심윤 술이 말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지난 날 오나라가 주래를 멸망시키자 자기가 오나라를 칠 것을 청하였다. 그 때 군주가 이르기를 ‘나는 아직 백성들을 안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도 이전의 상황과 같은데 주래에 성을 쌓고 오나라에 싸움을 거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그의 시종이 말하였다. “군주는 피곤한 줄 모르고 施舍하면서 백성들을 5년 동안이나 쉬게 하였으니 가히 안무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심윤 술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백성을 안무하는 군주는 안으로 씩씩이를 절약하고 밖으로 덕행을 세워 백성이 즐거워하고 외부의 적이 없게 한다.’고 하였다. 지금 초나라는 궁실의 규모에 한도가 없고, 백성들은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피로에 지쳐 죽은 시체가 거두는 사람이 없어 뒹굴고, 침식조차 잊고 있다. 이는 안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sup>32)</sup>

초나라가 주래에 성을 쌓아 오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자, 심윤 술은 초나라의 축성작업이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전에 오나라가 주래를 멸망시켰을 때 자기가 오나라를 칠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 그 때 군주

31) 『左傳』, 「昭公 7년」 “及即位 爲章華之宮 納亡人以實之……楚子成章華之臺 願如諸侯落之”

32) 『左傳』, 「昭公 19년」 “楚人城州來 沈尹戌曰 楚人必敗 昔 吳滅州來 子旗請伐之 王曰 吾未撫吾民 今亦如之 而城州來以挑吳 能無敗乎 侍者曰 王施舍不倦 息民五年 可謂撫之矣 戌曰 吾聞 撫民者 節用於內 而樹德於外 民樂其性 而無寇讐 今宮室無量 民人日駭 勞罷死轉 忘寢與食 非撫之也”

는 백성들을 아직 안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오나라를 치지 않았다. 심윤 술은 지금도 이전의 상황과 비슷한데 오히려 주래에 성을 쌓고 오나라를 정벌하고자 무리한 시도를 감행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초나라의 궁실의 규모에 한도가 없고, 축성작업에 동원되어 피로에 지쳐 죽은 백성의 시체가 많은 현실을 한탄하며, 안으로는 절약하고 밖으로는 덕행을 세워 백성이 즐거워하고 외부의 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안무하는 군주의 역할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기록에도 과도한 축성작업을 비판하는 심윤 술의 주장이 나타나 있다.

노소공 23년(기원전519) : 초나라 대부 낭와가 영윤이 된 뒤 도성인 영에 성을 增修하였다. 그러자 심윤 술이 말하였다. “옛날 양나라 군주가 궁실 밖에 참호를 파자 백성들이 쾌산하였다. 백성들이 윗사람을 버리면 망하는 것을 빼놓고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疆域을 확정하고, 土田을 잘 정비하고, 보루를 튼튼히 하고, 民人을 가까이 하고, 隣國과 신의를 지키고, 직무수행을 삼가 행하고, 참람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수비를 확실히 하여 대비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sup>33)</sup>

초나라 대부 낭와는 영윤이 된 뒤 도성에 성을 增修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심윤 술은 양나라 군주의 사례를 들어 과도한 축성작업을 비판하였다. 즉 양나라 군주가 궁실 밖에 참호를 파는 일이 잦아지자 백성들이 쾌산하였듯이, 백성들이 윗사람을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윤 술은 과도하게 성을 증수하는 일보다 토지의 경계를 잘 정비하고, 보루를 튼튼히 점검하며, 백성들을 가까이 대하고, 주변 제후국들과의 우호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며, 직무수행을 삼가 행하고, 수비를 확

33) 『左傳』, 「昭公 23년」 “楚囊瓦爲令尹 城郢 沈尹戌曰……昔梁伯溝其公宮而民潰 民棄其上 不亡何待 夫正其疆場 修其土田 險其走集 親其民人 明其伍候 信其隣國 慎其官守 守其交禮 不僭不貪 不懦不耆 完其守備 以待不虞 又何畏矣”

실하게 하여 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 4) 客館 축성

춘추시대에는 각 제후국의 사신들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거나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동맹국을 방문할 때 객관에 머물렀는데, 이로 인하여 객관을 축성하고 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노소공2년(기원전540) : 노나라 대부 숙궁이 진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는 한선자의 방문에 따른 답방이었다. 당시 진평공이 사람을 보내 숙궁을 郊勞하게 하자 숙궁이 사양하였다. “과군이 저를 보내 舊好를 다지게 하면서 당부하기를, ‘감히 진나라로 가 빈객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명을 짐사께 상달할 수 있다면 폐읍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청컨대 저의 사양을 받아주기 바랍니다.” 도성으로 들어간 뒤 객관에 들게 하자 숙궁이 또다시 사양하였다. “과군이 저에게 진나라와의 구호를 이어지게 하라고 명했으니 好合하여 사명이 완성되면 이는 저의 복이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大館에 들어가 머물 수 있습니까?”<sup>34)</sup>

노소공 2년 진평공이 한선자를 시켜서 노나라를 방문하여 집정사실을 알리고 노소공을 진현하게 하였다.<sup>35)</sup> 한선자의 방문에 답하기 위하여 노나라에서는 숙궁을 보내어 진나라에 방문하게 하였다. 진평공은 사람을 보내 교외에서 숙궁을 맞이하게 하였으나 숙궁이 이를 사양하였고, 도성으로 들어간 뒤 객관에 들게 하자 大館에 머물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이로써 보면 춘추시대 제후국의 사신들은 동맹국의 大館에 머무르며 사신의 명을 완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4) 『左傳』, 「昭公 2년」 “叔弓聘于晉 報宣子也 晉侯使郊勞 辭曰 寡君使弓來繼舊好 固曰 女無敢爲賓 徹命于執事 敝邑弘矣 敢辱郊使 請辭 致館 辭曰 寡君命下臣來繼舊好 好合使成 臣之祿也 敢辱大館”

35) 『左傳』, 「昭公 2년」 “二年春 晉侯使韓宣子來聘 且告爲政而來見”

노정공4년(기원전506) : 초소왕이 수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 신포서가 진나라로 가 구원병을 요청하면서 말하였다. “오나라는 큰 멧돼지와 뱀처럼 욕심을 부려 중원의 제후국들을 병탄하고 있으니 초나라가 가장 먼저 그 침해를 입었습니다. 과군은 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현재 궁벽지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과군이 저를 시켜 급히 고하게 하기를 ‘오랑캐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 만일 오나라가 초나라를 점령해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 진나라의 변경도 그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나라가 아직 우리 초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틈을 타 즉시 출병하여 초나라 땅의 일부를 점거하십시오. 만일 초나라가 멸망하면 그 땅은 곧 군주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만일 군주의 은덕에 기대어 초나라를 무사히 안정시키게 되면 초나라는 반드시 대를 이어 진나라를 섬길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애공은 사람을 보내 완곡한 어조로 사절하였다. “그대가 乞師하는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소. 그대는 우선 잠시 객관으로 가서 쉬도록 하시오. 우리가 잘 생각한 뒤 회답하도록 하겠소.” 신포서가 말하였다. “과군은 궁벽지로 피해 다니는 중이어서 安身할 곳조차 찾지 못한 형편입니다. 어찌 감히 하신인 제가 편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궁정 담장에 기대어 밤낮으로 통곡하며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넣지 않았다……이로써 진나라 군사가 드디어 출병하게 되었다.<sup>36)</sup>

오나라의 공격으로 위기에 봉착한 초소왕은 신포서를 진나라로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게 하였다. 신포서는 오나라의 침입으로 초소왕이 궁벽지에 거하는 처지를 간곡하게 전달함으로써 출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애공은 사절하며, 신포서에게 객관으로 가서 쉬도록 하였다. 이에 신포서는 자신의 군주가 몸을 편안히 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환란에 봉착해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大館에서 편히 설 수 있겠느냐고 하며, 객관에 들어가는 것을 사절한 채 궁정 담장에 기대어 밤낮으로 통곡하며 구

36) 『左傳』, 「定公4년」 “及昭王在隨 申包胥如秦乞師 曰 吳爲封豕長蛇 以荐食上國 虐始于楚 寡君失守社稷 越在草莽 使下臣告急 曰 夷德無厭 若隣于君 疆場之患也 逮吳之未定 君其取分焉 若楚之遂亡 君之土也 若以君靈撫之 世以事君 秦伯使辭焉 曰 寡人聞命矣 子姑就館 將圖而告 對曰 寡君越在草莽 未獲所伏 下臣何敢即安 立依于庭牆而哭 日夜不絕聲 勺飲不入口 七日……秦師乃出”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보면, 제후국의 사신들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동맹국을 방문할 때 객관에서 머물렀고, 이로 인하여 客館 축성 작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노양공31년(기원전542) : 노양공이 흉거한 달에 정나라 자산이 정간공을 도와 진나라로 갔다. 진평공이 노나라의 국상을 이유로 정간공을 접견하지 않았다. 이에 자산이 사람을 시켜 賓館의 담장을 모두 헐게 한 뒤 거마를 안으로 들여 놓았다. 그러자 진나라 대부 사문백이 찾아와 힐문하였다. “폐읍은 政刑이 잘 시행되지 않아 도적이 횡행하고 있소. 만일 제후들의 사자들이 폐읍을 찾아와 과군을 문후하고자 하는 경우도 어쩔 수가 없소. 이에 관원들을 보내 객관을 완전히 수리하도록 하였소. 객관의 대문을 높이고, 담장을 두텁게 하여 빈객의 걱정을 덜게 했소. 지금 그대가 담장을 헐었으니 비록 그대의 휘하들로 경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나라의 빈객이 오면 또 어찌해야 하오? 폐읍은 맹주국으로서 객관의 담장 둘레를 수선하여 빈객을 접대하고 있는데 이를 다 헐어버린다면 무엇으로 다른 빈객들의 뜻을 맞출 수 있겠소? 과군이 나를 시켜 그대의 말을 들어보라고 하였소.” 이에 자산이 대답하였다. “폐읍은 협소한 데다가 대국 사이에 있어 때도 없이 공물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읍은 감히 편히 있지도 못하고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물건을 모두 챙겨 병문을 위해 귀국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집사·진평공·가 한가롭지 못한 때를 만나 아직 조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찌하라는 명도 받지 못한 채 알현할 날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지고 온 물건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감히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올리면 이는 모두 귀국의 府實인데 진열해 보여드리는 의식을 생략하게 되니 감히 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밖에 내놓으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습기가 차 썩을 것이니 그리되면 폐읍의 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내가 들건대 전에 진문공은 맹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궁실은 아주 낮고 작게 짓고, 관망을 위한 누대는 없었으나, 제후들을 접대하기 위한 객관은 웅장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객관은 마치 제후들의 침궁과 같았고, 창고와 마구간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사공은 때맞춰 길을 닦았고, 기와공과 미장은 제 때에 객관의 담장을 단장하였고, 제후들의 빈객이 도착하면 햇불을 밝히는 사람은 햇불을 밝히고, 복인은 객관을 순시했다고 합니다. 또 거마를 안치하고, 빈종을 대신해 일을 하고, 수레의 굴대에 기름을 치고, 예인과 가축을 치는 사람을 관장하고, 백관의 관속들은 모두 빈객을 맞이하기 위해 각기 맡은

일을 열심히 돌보았다고 합니다. 진문공은 이어 빈객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이 일로 인해 공사를 황폐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객과 동고동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봐주고,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빈객은 진나라에 오는 것을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여겨 아무 걱정 없이 편안했으니 무슨 재난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빈객들은 도적을 두려워하거나 물건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습기에 차 썩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귀국의 동계에 있는 별궁은 넓이가 몇 리나 된다고 하는데 제후들을 맞이하는 객사는 마치 하인의 집과 비슷합니다. 문은 좁아 수레를 들일 수 없고, 담장은 높아 물건을 월장하여 안으로 들일 수 없고, 도적들은 횡행하고, 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객을 접견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소견의 명이 언제 내려질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장을 헐지 않으면 갖고 온 물건들을 둘 데가 없어 우리는 더욱 무거운 죄를 지을 것입니다. 감히 집사에게 가르침을 청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려는 것입니까? 비록 집사가 노나라의 국상을 맞았다고는 하나 이는 폐읍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바칠 물건을 드린 뒤 담장을 수리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귀국 군주의 은혜입니다.” 진나라의 사문백이 자산의 말을 조정에 복명하자 조문자가 말하였다. “확실히 그렇소. 내가 실로 덕행을 닦지 않아 예인의 垣과 같은 곳에 제후들을 맞이하였소. 이는 나의 잘못이오.” 그리하여 사문백을 시켜 사리를 알지 못한 자신의 불민을 사과하게 하였다. 진평공이 정간공을 융숭한 예로써 접견하고 향례를 베푼 뒤 예물을 풍부하게 두어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곧 제후들을 맞이할 객관을 새로 짓게 하였다.<sup>37)</sup>

정나라 자산이 정간공을 도와 진나라로 갔으나 진평공은 노나라의 국상을 이유로 정간공을 접견하지 않았다. 이에 자산이 사람을 시켜 賓館의 담장을 모두 헐게 한 뒤 거마를 안으로 들여놓게 하였다. 진나라 대부 사문백이 찾아와 객관의 담장을 함부로 헐 점을 힐문하자, 자산은 자신이 객관의 담장을 헐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즉 정나라는 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공물을 요구당하는 소국인데, 각지에서 거두어들인 물건을 챙겨서 빙문 차 진나라를 찾아왔으나, 진평공이 조현해주지 않고,

37) 『左傳』, 「襄公 31년」.

또 알현할 날짜도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온 물건을 바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를 감히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밖에 내놓으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습기가 차 썩을 것이니 객관의 담장을 헐어서 물건들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자산은 진문공이 제후들을 접대하기 위한 객관을 잘 지어 외교정책에 힘썼던 점을 칭송하며, 당시 진나라가 제후를 접견하는 방식이 소홀함을 지적하였다. 진문공은 빈객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공사를 황폐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빈객과 동고동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봐주고,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해주었다. 이에 빈객은 진나라에 오는 것을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듯이 여겨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해 했으며, 도적을 두려워하거나 물건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습기에 차 썩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후들을 맞이하는 객사는 마치 하인의 집과 비슷하여 문은 좁아 수레를 들일 수 없고, 담장은 높아 물건을 월장하여 안으로 들일 수 없고, 도적들은 횡행하고, 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빈객을 접견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소견의 명이 언제 내려질지도 알 길이 없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장을 헐지 않으면 갖고 온 물건들을 둘 데가 없어 더욱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진나라의 사문백이 자산의 말을 조정에 복명하자 조문자는 제후들을 맞이하는 객관을 짓고 관리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진평공은 정간공을 융숭한 예로써 접견하고 향례를 베푼 뒤 예물을 풍부하게 두어 돌아가게 하였고, 제후들을 맞이할 객관을 새로 짓게 하였다.

### 3. 축성작업의 시기

『좌전』에는 축성작업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종종 보인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제후국의 축성작업이 무분별하게 빈번해지자, 『좌전』의 기자는 축성작업의 적절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축성작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노장공 29년(기원전665) : 겨울 12월, 노나라가 諸와 防에 성을 쌓았다. 무릇 토목공사는 龍星-주나라 역법으로 11월에 보이는 별자리-이 나타나는 시기에 추수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火星-주나라 역법으로 정월 초에 나타나는 별자리-이 출현할 때 성을 쌓는데 필요한 물자를 공사장에 비치한다. 영실성이 혼정-10월 황혼 무렵 정남방의 중천-에 뜰 때 축조를 위해 판자를 세우고 동지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다.<sup>38)</sup>

이 기록에는 축성작업의 구체적인 시기가 잘 나타나 있다. 무릇 토목공사는 龍星이 나타나는 시기에 준비를 시작해서, 火星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필요한 물자를 공사장에 비치해야 하며, 영실성이 혼정에 뜰 때 성을 축조하기 위한 판자를 세운다. 이와 같이 진행된 축성작업은 동지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즉 축성작업의 적절한 시기는 농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다음에 보인다.

노양공 13년(기원전560) : 겨울, 노나라가 防땅에 성을 쌓았다. 『춘추』에 이를 쓴 것은 시령에 맞았기 때문이다. 노나라는 원래 이보다 일찍 성을 쌓으려고 하였으나 장무중이 농사철이 끝나기를 기다리자고 청하였던 것이다.<sup>39)</sup>

노나라는 양공 13년 겨울 防에 성을 쌓았다. 원래 이보다 일찍 성을 쌓고자 하였으나 농사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축성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좌전』의 기자가 이 일을 기록한 것은 축성작업이 시기에 적절하게 맞았기 때문이다.

노희공 20년(기원전640) : 20년 봄, 노나라가 도성의 南門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기록한 것은 그 시기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무릇 啓塞-성문과 다리-는 무

38) 『左傳』, 「莊公 28년」 “冬十二月 城諸及防 凡土功 龍見而畢務 戎事也 火見而致用 水昏正而裁 日至而畢”

39) 『左傳』, 「襄公 13년」 “冬 城防 書事 時也 於是將早城 臧武仲請俟畢農事”

너질 때에야 보수하는 것이다.<sup>40)</sup>

희공 20년 봄, 노나라는 도성의 南門을 새로 만들었다. 대개 성문이나 다리는 파손되었거나 무너졌을 때 보수하는 것인데, 노나라는 파손되지 않은 성문을 불필요하게 증축한 것이다. 좌전의 기자는 토목공사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 4. 축성작업에 따른 民의 일탈

이상으로 춘추시대의 빈번한 축성작업 현황과 축성작업의 이유, 축성작업의 시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고 빈번한 축성작업은 民의 일탈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民의 일탈현상은 개체성의 표출양상임을 알 수 있다.

노희공 19년(기원전 641) : 양나라가 망하였다. 당초 양백은 토목공사를 좋아해서 자주 성을 쌓으면서도 성안에 사람이 살게 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피로에 지친 나머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양백은 늘 “장차 도적이 침공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양백이 궁실 둘레에 해자를 팔 때, “진나라가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고 하자,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고 말았다. 결국 양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망하였다.<sup>41)</sup>

양나라 군주는 토목공사를 좋아해서 자주 성을 쌓았는데,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피로에 지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백은 항상 도적이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 무리하게 축성작업을 진행시켰다. 결국 백성들은 양백의 과도한 축성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였고, 양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이 기록은

40) 『左傳』, 「僖公 20년」 “二十年春 新作南門 書不時也 凡啓塞 從時”

41) 『左傳』, 「僖公 19년」 “梁亡 初 梁伯好土功 亟城而弗處 民罷而弗堪 則曰某寇將至 乃溝公宮 曰 秦將襲我 民懼而潰 秦遂取梁”

축성작업에 지친 백성들이 도주함으로써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노희공 16년(기원전644) : 12월, 노희공과 송양공, 진목공, 위문공, 정문공, 허희공, 형후, 조공공이 淮에서 만났다. 이는 鄆나라 일과 동방의 공략을 모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나라에 성을 쌓던 중 일꾼들이 크게 곤핍하게 되었다. 밤에 어떤 사람이 언덕 위로 올라가 외치기를, “제나라에 난리가 났다.”고 하였다. 이에 제후들이 성을 다 쌓지도 못한 채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갔다.<sup>42)</sup>

증나라에 성을 쌓을 때, 과도한 부역으로 곤핍한 백성이 “제나라에 난리가 났다.”고 하자 제후들이 성을 쌓는 일을 멈추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이 기록에는 과도한 부역으로 지친 백성의 술수가 축성작업을 중단시킨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노양공 17년(기원전556) : 송나라 대부 황국보가 태제가 되었다. 그는 송평공을 위해 누대 한 채를 짓게 되었으나 백성들이 추수할 시기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자한이 농사가 끝난 뒤 공사할 것을 청했으나 송평공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를 강행했는데 누대를 짓는 백성들이 이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택문에 사는 흰사람-황국보-이 우리를 노역에 징발하였네. 도성에 사는 검은 사람-자한-이 우리의 마음을 위무하네.”<sup>43)</sup>

송나라 대부 황국보는 백성들이 추수할 시기에 송평공을 위해 누대 한 채를 짓고자 하였다. 자한이 농한기에 공사를 진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송평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축성 작업을 강행하자 백성들은 고된 부역에 자신들을 징발하는 황국보를 풍자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로써 보면 축성 작업에 동원된 民은 위정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

42) 『左傳』, 「僖公 16년」 “十二月 會于淮 謀鄆且東略也 城鄆 役人病 有夜登丘而呼曰 齊有亂 不果城而還”

43) 『左傳』, 「襄公 17년」 “宋皇國父爲大宰 爲平公築臺 妨於農功 子罕請俟農功之畢 公不許 築者謳曰 澤門之皙 實興我役 邑中之黔 實慰我心”

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양공 23년(기원전550) : 陳哀公이 초나라로 갔다. 이 때 초나라에 망명 중인 공자 黃이 陳나라의 二慶-진나라 대부인 경호와 경인-을 고소하자 초나라에서 二慶을 불렀다. 이에 二慶은 직접 가지 않고 일족인 경락을 보냈다. 초나라 사람이 경락을 죽였다. 이에 경씨들이 진나라를 통솔해 초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여름, 초나라의 막오 굴건이 진애공을 앞세우고 진나라로 쳐들어가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 때 진나라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있었다. 한 일꾼이 공사 중에 널판을 떨어뜨리자 경씨가 그 일꾼을 죽였다. 이에 일꾼들이 서로 소식을 전한 뒤 각자 공사 감독관을 죽이고 여세를 몰아 경호와 경인마저 죽였다.<sup>44)</sup>

진나라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을 때, 공사 중에 한 일꾼이 널판을 떨어뜨렸는데 경씨가 그 일꾼을 죽였다. 이에 일꾼들이 공사 감독관을 죽이고 경호와 경인도 죽였다.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 경씨에게 반기를 든 民의 모습에서 개체성의 표출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 IV. 결론

고대 중국에서 民은 有德者의 통치로 보호받아야 될 수동적인 존재로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좌전』이나 『논어』에는 民의 또 다른 면모가 보인다. 民은 통치자의 교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군주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통치자의 다스림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인 ‘신뢰’를 제공하는 존재로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수동적 존재로서만 부각되어 왔던 民이 개체적

44) 『左傳』, 「襄公 23年」 “陳侯如楚 公子黃愬二慶於楚 楚人召之 使慶樂往 殺之 慶氏以陳叛 夏 屈建從陳侯圍陳 陳人城 板隊而殺人 役人相命 各殺其長 遂殺慶虎慶寅”

존재로서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 은주 교체기 각 계층에 태동했던 ‘개체성’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서주시대 천자의 ‘개체성’의 태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은주 교체기의 천명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왕위는 천명의 영원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승되었고, 왕들은 개창자의 연속체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天命常’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면서 천자는 선대의 왕들을 잇는 집단의 연속체적 존재가 아니라, 집단에서 분리된 ‘개체’로서 책임적인 행위를 통하여 왕조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행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주시대 백이숙제의 개체성 양상은 ‘귀속’과 ‘떠남’의 형태로 나타났다. 백이숙제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통치자를 따르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통치자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다. 백이숙제는 다수의 정치적 견해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개체적인 행동양상을 보였다. 즉 이들에게 보이는 개체성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民의 개체성 양상은 욕구 충족적인 특징을 지녔다. 民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공업, 기여에 대해 자기의지와 결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충족의 여부에 따라 의지와 결단을 표출하였다. 즉 民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군주를 찾아 ‘떠남’으로써 개체성을 표출함을 알 수 있었다.

서주시대 民의 개체성은 春秋時代까지 이어져서 사회전반의 현상에서 불합리한 정책에 직면하였을 때, 民은 일탈하는 행동을 통해 개체성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에 III장에서는 축성작업에 나타난 春秋時代 民의 개체성 표출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춘추시대는 각 제후국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축성 작업이 자주 진행되었고, 民으로부터의 부역을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지배층

의 과도한 축성 작업은 民의 일탈현상을 초래하였다. 民은 과도한 축성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기도 하였고, 과도한 부역으로 지친 民의 술수는 축성 작업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民은 고된 부역에 자신들을 징발하는 위정자를 풍자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고, 축성 작업 중에 民을 부당하게 대우한 감독관을 죽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면 축성 작업에 동원된 民은 위정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개체성을 표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西周時代에 태동한 욕구충족적인 民의 개체성은 春秋時代로 이어지면서 부당한 정책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民의 개체성 표출은 戰國時代에 이르러 여러 사상가들이 民을 국가의 근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맹자는 통치자들에게 ‘與民同樂’을 주장할 정도로 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 <參考 文獻>

『詩經』

『左傳』

『論語』

『史記』

벤자민 슈워츠 지음·나성 옮김, 『중국 고대 사상의 세계』, 살림, 2004.

신정근, 「책임적 행위자 용어의 기원」, 『철학논구』 제27집, 1997.

——, 「고대 중국 仁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9.

신채식 저, 『동양사개론』, 삼영사, 1994.

양선이,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관하여-흠의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9집, 2001.

조기빈 저, 조남호·신정근 역, 『반논어』, 예문서원, 1999.

孫作雲, 『詩經與周代社會研究』, 北京: 中華書局, 1966.

「Individualism and Humanitarianism in Late Ming Thought」, Wm. T. de Bary ed.,  
Self and Society in Ming Society (New York & London, Columbia UP),  
1970.

### Abstract

*The aspect of the individuality in building castles in  
Chun-chu era / Chun Young Mi\**

The people in the Ancient China were considered as passive beings to be protected by the rule of a virtuous man. However, we can see another aspect of the people in “Joajun” and “The Analects of Confucius”. The people were not passive any more in here. They tried to look for a monarch who could satisfy their desires and rise to unreasonable policies actively rather than wait for edification of the ruler. They were the people providing ‘confidence’ which must be the decisive factor of solid rule of the ruler. Therefore, in this study I tried to clarify another phase of the people who came to a definite decision as individuals and rose to unjust policies actively rather than were passive beings.

The aspect of ‘the individuality’ had a characteristic of satisfying their desires. The people expressed the individuality by ‘leaving’ to look for a monarch who could satisfy their basic desires. ‘The individuality’ of the people continued until Chun-chu era and they expressed the individuality through deviation movements when they faced unjust policies throughout the society.

In Chun-chu era there were lots of work of building castles due to wars between feudal lords, and therefore the people were forced to work hard very often. Too much work of building castles caused the people to depart from their works.

Some people fled from excessive work and others who were bone tired of

---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ym0623@hanmail.net

overwork made the work stopped. Furthermore, the people made songs to satirize statesmen who put in requisition for excessive work and they sometimes killed supervisors who treated them unjustly during the work. Through this fact we can see that the people who were forced to work expressed the individuality by coping with the raw deal of the statesmen actively.

Therefore, the individuality of the people satisfying their desires in Suh-Ju era was revealed in Chun-chu era in a way that they were against the unreasonable policies. And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ity by the people made many philosophers recognize that 'the people' are the foundation of a nation in the age of civil wars.

**【Key words】** individuality, building castles, depart, The people

투고일 : 11월 8일, 심사일 :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